

24 주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

Chapter

요 13:21~30, 마 27:3~10

찬송가 510장 (갯세마네 동산에), 찬양 41장 (내 마음 깊은 곳)

오늘 배울



말씀

1.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저버린 유다의 삶과 그 비참한 최후를 압니다.
2.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었음을 알고 경계를 삼습니다.

마음 열기



남을 배신해 본 적이 있나요?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려 본 적이 있나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나요?

만일 그랬다면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말씀을 이해하기

가롯인 시몬의 아들 유다는 갈릴리가 아닌 유대 출신으로서 예수님에 의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그는 다른 열한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주님의 가르침도 직접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신도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 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주님을 자신의 출세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돈을 맡았던 그는 거기서 돈을 조금씩 훔쳐왔는데 그러한 그의 죄는 점점 의도적인 범죄로 발전해갔습니다. 마귀는 그런 유다를 주의하여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주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주님을 배반하고 은 삼십에 주님을 팔아 버립니다. 주님의 제자 유다가 마귀의 쓰임을 받는 배신자 유다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그를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저버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지 못했기에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음으로써 그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맙니다. 그는 주님을 삼 년 반이나 따라다니는 최고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대로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므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 26:24)

The Son of Man indeed goes just as it is written of Him, but woe to that man by whom the Son of Man is betrayed! It would have been good for that man if he had not been born. (Mt 26:24)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요 12:3~6)

(행 1:15~20)

(딤펴전 6:7~10)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주님의 사랑과 경고를 배척함으로써 결국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유다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경고를 생각해 봅시다.

1.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의 발도 똑같이 사랑스럽게 만져주시고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던 도중 주님께서서는 유다에게 첫 번째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11절을 읽고 그 경고의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주님께서서는 제자들과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유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두 번째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25절을 읽고 그 두 번째 경고를 요약해서 적어 보세요.
3. 주님께서서는 유다에게 더욱 분명하고 직접적인 세 번째 경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4~27절을 읽고 그 경고를 적어보세요.
4. 이처럼 유다에 대해 주님께서 세 차례나 경고했는데도 요한복음 13장 28~29절에 의하면 제자들 중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 됩니까?
5. 유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가운데 결국 주님을 은 삼십에 팔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서 유다에게 마지막 말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누가복음 22장 47~48절을 읽고 적어보세요.
6. 나는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깨닫고 민감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나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성경책 안에 무엇이



말씀 들을 때나 찬양을 부를 때에 가끔 우리 머리 속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책 안에 연예인 사진을 끼워 넣고 다니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 중에 찬양 중에 혹은 교제 중에 보람직하고 탐스러운
이 세상의 것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시간만큼은 집중합시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눅 12:34)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옛 사람들은 황금을 ‘혹사심’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총명과 판단을 흐리게 하며 양심을 부패케 하고 정욕에 눈이 어두워지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인간의 관계는 마치 배와 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이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물 속에 침몰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에게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나 그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급기야 인간은 파선된 배와 같아져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배금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나라와 민족을 망치고 교회를 부패케 합니다. 돈에 대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으나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건물을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문화를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황금 십자가를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영생, 천국, 그리고 구원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만든 육신적인 것들은 무엇이든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것들은 어느 것 하나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